



올해도 부활절을 맞아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연합해 새벽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GMU 박사원장 이병구 교수(오른쪽)와 CPTI 김재규 총장이 협정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했다.

“신앙의 첫 출발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자”

2019년도 남가주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지난 21일은 우리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고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에 갇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다. 부활절을 맞아, 남가주 지역 교회들은 각 지역별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LA지역은 남가주교협 주관으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

서 오전 6시에 부활절연합예배가 열렸다. 박성근 목사의 인도로, 김성대 목사(찬양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김순옥 목사(스텐튼교회 담임)가 성경 봉독을, 장로성가단이 특별 찬양을 한 후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20:19-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며 “부활

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안과 기쁨이 온다. 부활을 누리며 사명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하여 (예은교회 담임 광건섭 목사), 한국 지도자들과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미국의 영적회복과 차세대 를 위하여(오직예수선교교회 담임 샘신 목사) 등의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 했다. [2면에서 계속]

그레이스미션대,

캄보디아 장신대와 MOU 체결

3월 29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최규남. 이하 GMU)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총장 김재규 박사)는 MOU를 맺고 세계선교와 신학교 발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GMU에 따르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2004년 7개 장로교단이 연합하여 세워진 현지신학교이다. 현재 3대 총장이신 김재규 박사가 부임하여 2500여명 대지 위에 강의동, 기숙사, 행정실, 도서관, 채플실, 유치원 건물을 건축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다. 180여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공부하고 있고, 40여명의 현지 교수와 한인선교사들이 교수로 섬기고 있다.

선교 지향적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교수들에게 GMU 박사원이 제공하는 Dmiss 선교학 박사과정과 PhD IC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과정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또한 현지인 교수 요원들에게 미국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학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ATS(신학교협의회), TRACS(전미기독교대학협의회), ABHE(성경고등교육협회) 정회원이며 한인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또한 글로벌(Glocal)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현재 280여명이 BA, BACC, MACE, MAICS, MACC, MDiv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박사원은 50여명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있다. 선교학박사(Dmiss)과정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인가기관인 ATS에 인가를 받아 제공하고 있고,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CS)과정은 TRACS 인가를 받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캄보디아 박사과정 지역강의와 입학설명회를 위하여 방문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장 이병구 교수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 김재규 박사가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앞으로 양교는 적극적으로 학문 교류와 교수 교류, 학생 교류하기로 했다고 GMU는 밝혔다.

스리랑카 테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최근 스리랑카의 교회와 성당 등에서 연이은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가운데,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스리랑카 바티칼로아에 소재한 시온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테러가 발생

하기 바로 몇 분 전 아이들은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보도에 따르면 주일학교 교사인 캐롤라인 마헨드란은 “당시 주일학교는 부활절 예배로 들려졌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물었

을 때,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 절반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스리랑카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2,000만 인구의 약 10% 미만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대략 300명, 부상자는 최소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서 계속]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홀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Invitation

초대장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운데 2004년 1월 23일에 창간된 기독일보 신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와 함께 이사장 이·취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기독일보 문서선교 사역을 축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대 이임이사장 : 임택순 3대 취임이사장 : 존 킴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0:30
장소 마가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문의 T.(213)739-0403

*원활한 행사 진행과 식사 준비로 인해 예약하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LA지역은 2019년 부활절 연합새벽을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드렸다.

[1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자" 에 이어서]

예배는 남가주새누리교회 성가대, 주님의영광교회 성가대, 남가주장로성가단 연합으로 합창한 뒤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OC지역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연합으로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1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박재만 목사(미러클포인트교회)의 사회로, 민승기 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가 기도하고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가 설교했다.

이서牧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부활의 능력은 모든것을 변화시킨다. 겹쟁이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뒤 더 이상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듯이 저도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현영 목사(큰빛교회)의 사회로 2부기도회가 열렸으며 김기동 목사(중만교회), 이호우 목사(좋은소식교회), 김근수 목사(OC목사회장)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회갱신과 부흥, 연합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헌금에 이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주최측은, 금번 모아진 헌금을 한국 강원도 재해 후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샌퍼난도밸리 지역

이 지역은 샌퍼난도밸리교역자협의회 주최로 주안교회(최혁 목사)

에서 모였다. 이준우 목사(벨리안인커뮤니티교회)가 사회를 보고,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가 기도했다. 양수철 목사(에버그린선교회)가 골로새서 3장 1~4절을 봉독하고 주안교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김선일 목사(남가주마라톤교회)는 "부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고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의 광고, 변은광 목사(벨리생명의교회)의 헌금기도, 문광현 목사(벨리은퇴목사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벤츄라 지역

벤츄라지역은 벤츄라카운티 교회연합회 주최로,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에서 모여 예배했다. 남재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진구 목사(옥스나드한인교회)의 기도,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가 계시록 3장 1-3절을 본문으로 "깨어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벤츄라지역목사회의 헌금찬양에 이어, 김민영 목사(벤츄라한인감리교회)가 헌금기도하고, 이상영 목사(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헌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일에 쓰여질 계획이다.

사우스베이 지역

사우스베이 지역은 산샘교회(윤석형 목사)에서 300여 성도들이 모여 고창현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고창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신태섭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 연합 성가대(지휘 황신애 집사)가 성가를 불렀다. 이상훈 목사(사우스베이한

인목사회 회장, 주비전교회 담임)가 행 2장 23-24, 32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가 '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가 '미국과 다음세대'를 위해,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가 '한국의 정치 안정과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목회자 일동이 봉헌 찬송을 부르고 윤석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빅토밸리 지역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김성일 목사) 주최로 빅토밸리복음교회(김은호 목사)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로 모였다.

목사회 총무인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 은퇴목사)의 사회로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독교원 담임)의 대표기도 후 누가복음 24장 44-49절의 본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성일 목사(목사회 회장, 빅토밸 예수마음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확연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의 자세와 사명을 전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류창렬 목사(목사회 회계, 나눔동산교회 담임)의 봉헌기도 후 목사회 전체 회원들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합심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고승경 목사(빅토빌중앙장로교회 담임)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김은호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 담임)가, 목사회와 지역교

[1면 '스리랑카 테러 희생자들' 에 이어서] 시온교회 쿠마란 목사는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했다. 약 오전 8시 30분경, 자살폭탄테러 용의자가 교회 계단으로 가방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 그가 테러범인 줄 몰랐다. 예배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름이 뭐냐고 묻자 그는 '무슬림이었는데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사제들이 그를 자리로 안내했고 난 강대상을 향해 걸어가다가 폭발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성도들의 피가 교회 벽에 흠어져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번 사건으로 시온교회 교인들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는 주일학교 아이들 12명도 포함됐다.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아라사라트남 벨(41)씨는 외아들 V. 잭슨(13)을 잃었다. 잭슨은 주일 학교에 참석한 후, 교회 입구 근처에서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 씨는 "나의 누이도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여동생과 매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용의자를 보고 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내 친구 역시 곧바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교회 인근 주민인 S. 비카쉬(21)씨는 "폭발물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폭발물이 터지는 소리임을 알고 앰블런스와 소방차를 뒤따라 갔다. 현장은 끔찍했다. 여기저기에 수 많은 피와 신체의 일부가 흠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시신을 볼 때는 마음이 무너져내렸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지역은 산샘교회에 모여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회를 위해(백석영 목사(주의사랑선교회 담임)가 기도한 후 고광덕 목사(한인성안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중부지역

중부지역은 21일 새벽 5시 30분에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모이며 방상용 목사(세리토스선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동부 지역

동부지역은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ECO선한목자교회에서 모였다. LA 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부회장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연합찬양대의 특송이 있었다.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는 막 16:1-8절을 본문으로 "무덤에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갈릴리는 신앙의 첫

출발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한 추억의 자리이며 회복을 통해 다시금 사명을 불붙고 나가는 자리이다.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영혼을 구하는 사명자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가 지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기도를 이끌었다. 이어 박진석 목사(브릿지교회)가 헌금기도하고 신용환 목사의 광고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축도로 모든예배를 마쳤다. 이날 헌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를 위해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샌디에고 북부 / 남부

샌디에고 북부지역은 팔로마장로교회(서명성 목사)에서 모여 김진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설교했으며 남부는 소망교회(이창후 목사)에 모여 정수일 목사(샌디에고한빛교회)가 설교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의 날" National Day of Prayer

일시 5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찬양 7시 15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강사 말씀선포로 진유철 목사와 기도 인도 강사로 한기홍 목사, 민종기 목사, 민경엽 목사와 20여명의 기도자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남가주 전체교계 연합으로 열립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불씨들이 다 같이 모여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 갑시다. 미국 연방정부가 1988년 레이건대통령 때부터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National Prayer Day로 정하고 미국의 전 교회가 4만 7천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 4월 28일을 특별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주일예배 시에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공동주관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019년 나성순복음교회
참가문의와 연락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13-384-5232





'강원도재난피해 미주연합후원회' 경과보고대회가 18일 목 12시에 LA한인타운 옹공에서 열렸다.

'강원도재난피해 미주연합후원회' 경과보고

지난 4월초에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강원도를 돕기 위해 결성된 '강원도재난피해 미주연합후원회' 경과보고대회가 18일 목 12시에 LA한인타운 옹공에서 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의해 남상국 대내담당위원의 대표 기도로 시작되어, 인사말씀에 남가주교회 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목사회장 김관진 목사,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 등의 연합후원회 심의위원, LA총영사관 구태훈 영사, 권영신 국회의원이사장이 참여했다. 또 여성위원 에스더 윤 목사가 특송하고, 후원회 총회장인 한기홍 목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애국인 마음, 양분된 조국에 하나된 마음, 돕는 마음을 전하여 한 민족 된, 사랑의 이웃 됨을 표현하자"고 설교했다.

경과보고를 한 이병만 후원회추진위원장은 "좋은 일을 힘을 합쳐서 하게 되어 격려가 된다"고 했다. 이날 모임은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장인 김희창 목사의 축도와 식사교제로 마쳤다.

이날 참석 인사들은 "강원도민들이 이러한 따뜻한 후원 동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불의 재난과 안보의 위협에서도 다시 지역을 살리는 애향심을 갖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 일시는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가두모금을 4월 27일(토), 5월 4일(토) 등 엘에이와 OC 지역 마켓 및 상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모금 시 PAY TO THE ORDER를 (Kangwon-kwds)로 하면 되며, 은행은뱅크 오프 호프, 어카운트 넘버는 6400-271-931이다.

모금을 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kangwon disaster relief support of Korean American, 6742 Sepulveda Bl. Vannuys CA 91411로 보내면 된다. 비영리단체 구좌로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연합후원회는 밝혔다.

문의) 818-943-1830 (최대용 회계담당) 678-538-7777(이병만 추진위원장)

영화 <1919 유관순>, 5월부터 미주투어 시작



영화<1919유관순>의 미주투어가 5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영화 <1919 유관순>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에 고국에서 개봉된 가운데, 미주에서도 오는 5월부터 투어가 시작된다.

오는 5월 17일(금)부터 18일(토) 오후 7시에 라스베이거스청년연합집회에서, 19일(일) 오후 2시에 LA웨스트힐장로교회, 23일(목) 오후 7시 SF산호세선교집회, 24일(금) 오후 7시 남가주은혜한인교회, 25일(토) 오전 6시에 엘에이사랑의교회, 오전 7시에 미주비전교회에서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 <1919 유관순>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3.1운동을 그려내며 복음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조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시대에 저항한 유관순과 8호 감방의 여성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1919 유관순>은 올 해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대와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참여하며 복음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조들의 모습과 유관순과 그녀와 함께 독립을 외쳤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1919 유관순>은 17세 이화학당의 소녀 유관순을 필두로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자유를 외쳤던 수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의 삶과 생애를 담은 자료와 고증을 토대로 그린 작품이다. 백석대 유관순연구소와 유관순 기념사업회의 고증을 받아 다큐멘터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여성 독립 운동가분들이 당한 고문과 고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에서 배우 하희라가 영화의 내레이션에 참여, 100년 전 독립만세를 외쳤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간절함을 대변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추천사에서 "제암리 교회에서 일본에 의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지켰다. 3.1운동 정신이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그리고 청년이 함께 하는 민족 화합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이다.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기드온동족선교회]



LA백송교회에서 이순희 목사 초청 성령 컨퍼런스가 열린다.

LA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연다

"세상의 심리학으로는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영성혁명이란 우리 내면의 근본적 악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고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진리로 자유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컨퍼런스가 4월 24일(수)부터 5월 4일(토)까지 LA백송교회(김성식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루 두 차례, 오전 11시, '신유로 열리는 천국'과 오후 7시 30분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을 주제로 열리며(주일 제외) 이순희 목사(백송교회 담임)가 강사로 서서,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전한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 컨퍼런스에서는 "시기, 미움, 원망, 교만이 가득한 내면을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 "방언, 신유 등 은사체법 및 영적 전쟁의 체험적 이해", "알코올/인터넷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질환 및 각종 암과 영육의 질병 치유"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는 서울신대와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는, 결혼 후 갑자기 발병한 환경, 환영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남편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한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극적 체험을 했다. 이후 그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고, 1997년부터는 오산리기도원 전속가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2000년 미국 애틀랜타 연합집회에 초청돼 8개 교회에서 간증집회를 이끌었는데,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변화 받게 되면서, 부흥사로 발탁되었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령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영성혁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목사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백송교회를 개척하고, 이어 대구, 캐나다에 지성전, 충남 보령에 백송수양관을 세웠으며, 2015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지난해인 2018년에는 LA백송교회를 창립했다.

기독교대안성결교회 교단 소속인 백송교회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로 시작되었으며, 말씀을 바탕으로 '변화', '치유',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주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남가주새누리교회

자녀 성교육 세미나 개최한다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가 자녀 성교육 세미나를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새성전 교육관 317호실에서 진행한다.

남가주새누리교회 초등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강사에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서게 된다. 성

소영 박사는 LA에서 13년 넘게 심리치료, 가족치료에 힘써왔다.

교회 측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소중한 자녀들의 성에 대한 강의가 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운전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아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5월 2일(목) ~ 5월 5일(주일)

주님의 영광교회 | 장소: 비전센터(본당)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문의: T.(213)749-4500

첫째날 5월 2일(목) 7:30pm
절대절망, 절대희망 (시 40:1~2)

셋째날 5월 4일(토) 7:30pm
기적같은 축복 (대상 4:10)

둘째날 5월 3일(금) 7:30pm
눈물의 축복 (시 126:5-6)

넷째날 5월 5일(주일) 1:00pm
인내하는자의 축복 (욥 23:10)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9>

북아프리카 튀니지 종족셀링(2)

마그레브(Maghreb)의 부흥을 위해 그 땅의 청년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음은 '하나님의 선교(Misio dei)'가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거대한 아랍의 이슬람 군단이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누르고 있는 사망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전쟁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고 있다. 승리한 전쟁에 담대히 나가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되는 것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다니엘 2장의 역사를 우리는 안다. 거대한 우상 신전이 서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날아 온 것이 아닌 작은 돌이 그 신상의 발을 부수고 마침내 가루로 만드는 역사를. 또한 사무엘상 17장의 역사를 우리는 안다. 그 어린 디어린 다윗의 손에 작은 돌 하나가 블레셋 최강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을. 그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을 자가 없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Maghreb)를 향해 하나님은 소년 다윗같은 여리고 어린 남녀청년들을 일으키셨다.

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분노와 원한으로 살던 어느 날 그는 한 전도자의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리비아 땅과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하고 리비아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 집회에서 또 다른 한 튀니지 A 형제는 "10만 마그레브, 200만 아프리카의 비전이 더 이상 한국친구들을 통해 나오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마그레브 교회가 고백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외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제 튀니지의 청년 세대가 일어나 그 땅에 1400년간 멈추어졌던 복음의 시계를 전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부흥집회 마지막 날 튀니지 자매 청년의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다. 아프진 할머니, 가난한 가정형편, 정규교육도 다 받지 못한 이 자매가 고백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예수 앞에 그들은 걸음을 깔았지만 저는 저의 생명을 깔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겠습니다."

모였던 모든 이들이 큰 함성으로 "아멘!" 했고 한 자매를 빙 두른 채 손을 뻗어 주의 길로 가는 자매를 축복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눈물 범벅이가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부흥의 열쇠로 튀니지와 마그레브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모두가 찬양하며 집회를 마쳤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와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다."(시22:27-28)

"주여! 튀니지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외치며 이제 튀니지가 더 이상 아랍의 봄의 민족이 아닌 하늘의 봄, 그리스도의 계절의 땅이 되게 하소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복음의 씨를 품고 들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 튀니지에서 열렸던 "마그레브 부흥집회"에 리비아에서 살다가 고향 땅 튀니지로 돌아 온 S형제가 참여했다.

S형제가 살았던 리비아는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죄악이 만연한 어두운 땅이었다. 그는 리비아 폭도들이 집을 부수고 들어와 어머니와 여동생을 성폭행하

• 섬기고 나누는 웰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나눔의 행복



강태광 목사
웰드쉐어 USA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는 나눔의 시대입니다. 이웃과 나눔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나눔의 문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 와 있습니다. 우버 택시를 이용해 보셨나요? 라이드 Sharing 입니다. 즉 교통수단의 나눔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가 없는 사람과 소통을 통해 나누는 것입니다. 세계 대도시를 가면 어디에도 우버 같은 Ride Sharing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눔의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도 나눔의 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Facebook, 카톡, 트윗 모두 나눔입니다. 필자도 페이스북으로 이웃들과 소통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도움도 주고 받고, 사랑받고 격려받습니다. 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도 초청받고, 선교후원도 받고, 옛 친구도 만납니다.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인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요즘 호황 산업을 보면 모두 나눔에 기초를 둔 산업입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각광받는 분야들입니다. 모두 나눔 문화에 바탕을 둔 21세기형 산업입니다. 20세기에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호황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나타난 재벌들은 나눔의 기업들입니다. 나눔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기업들이 성공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 "Share"의 스펠링을 따라 건강한 나눔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S입니다. S는 Sacrifice(희생)입니다. 나눔의 축복은 건강한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희생적 나눔이 기적을 만듭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나누는 곳에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둘째, H입니다. Heart(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나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있는 나눔이 감동을 낳는 건강한 나눔

입니다. 마음이 없는 나눔은 오히려 갈등과 아픔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A입니다. Appreciation(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 형제,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나눔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나눠집니다. 감사함으로 나누면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담긴 나눔의 현상이 행복의 생태계입니다.

넷째, R입니다. Responsibility(책임)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한 건강한 부담감이 책임감입니다. 재난의 소식과 사고의 뉴스를 듣고 부담감을 갖는 것이 성숙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은 책임감을 느끼고 도와 주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 갔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다섯째, E입니다. Enthusiasm(열정)입니다. 범사에 열정이 필요하지만 나눔에는 더욱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이삿짐을 도와도 열정이 필요 합니다. 가난한자 불쌍한 자를 만나면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웰드쉐어를 돕는 1권사님이 계십니다. 우연히 아프리카 아동 현실을 보고 돕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꼬박 꼬박 후원금을 납부하십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러면 나눔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나눔의 유익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 나눔이 성공을 결정합니다. 잘 나누는 기업, 나눔의 원리를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소통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페이스북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젊은이도 있습니다. 최근 경북 산골 대장장이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를 우연히 아마존에 올렸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온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로 행복날 비명을 지릅니다. 나눔의 길목에 성공이 있습니다. 나눔이 성공으로가는 왕도입니다.

둘째, 나눔이 인생의 결산입니다. 일생을 통해 나눈 양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호흡이 끝나고 관이 닫힐 때 섬김과 나눔의 질과 양이 인생을 평가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나눈 것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30년 밖에 살지 않았는데 나눔이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때 남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나누고 섬기며 살아온 삶이 인생 결산 자료입니다.

셋째, 나눔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만족, 기쁨 그리고 보람이 만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영양소입니다. 나눔이 만족, 기쁨, 그리고 보람을 동시에 갖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인간의 활동가운데 가장 효용성이 가장 높은 것이 나눔입니다. 불행하십니까? 나눠 보십시오. 나누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울하십니까? 나눠 보세요. 우울증 환자의 치료요법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나눔의 실천이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나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눠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눔이 인생을 꽃피웁니다. 나눔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나눔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눔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JesusKidz 무료 세미나, 오렌지카운티 홀러톤교회서

주일학교 전문 교육기관인 '지저스 키즈(Jesus Kidz : 대표 에스더 임)'는 오는 5월 4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오렌지카운티 홀러톤 장로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며 주일학교 전반적인 프로그램(찬양, 예배, 성경공부)을 다루며, 설교와 성경공부 교재(\$25)를 무료로 배부한다. 또한 2부 순서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 주는 방법 및

풍선을 이용한 교회 장식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풍선은 준비되어 있지만, 풍선 펌프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다과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문의는 Jesus Kids 대표 에스더 임 전도사(213-422-0022)에게 하면 된다.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은 임 전도사는 30년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경험

을 토대로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힘 쓰고 있다.



JesusKids 세미나 모습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덕,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이민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툰 미사오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클리닉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국 방송 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x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낙태 수술'의 실체

[인터뷰]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이다. 현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오는 2020년 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14주까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 낙태에 반대하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가장 강력히 촉구했던 곳이 기독교계였다. 특히 가톨릭은 약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자 지난 약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온 차희제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심정이 어떤가?

“참담하고 가슴 아프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낙태 반대 등 생명운동을 펼쳐온 사람으로서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판결이 있기 전, 무수히 많은 성명서와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톨릭에선 약 100만 명, 개신교에서도 약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합헌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판결문을 보고 '저들이 프로초이스(Pro-choice,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다.-편집자 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7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 또 외국에서 불어 닳친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낙태를 마치 '여성 인권'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한 이들의 잘못이 크다.”

낙태가 여성 인권과 관계가 없다는 건가?

“낙태죄를 없애면 여성의 인권이 증진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남자들만 더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남

성책임법이 없으므로 아기를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당히 '낙태하라'고 할 지도 모른다. 거절하면 '왜 여성만 자기결정권을 가지냐고' 당장 반론을 제기할 텐데, 헌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낙태죄를 폐지했기에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나라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법으로 낙태죄를 규정하지 않지만, 낙태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령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지 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있다. 친부가 도망이라도 가면 공권력이 동원돼 그를 찾아 양육비를 물린다. 이런 나라들의 미혼모 출산율은 30~40%나 된다. 우리나라는 채 3%가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일단 법부터 없애자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나?

“30여 년 전, 레지던트 시절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물론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텐데, 그 땐 의사로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병원에서 밤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으면 8~10주 정도 된 임부들이 낙태를 하러 찾아 오곤 했다.

처음 낙태 수술을 했을 때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유산 수술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태에서 이미 죽은 아기는 엄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유산 수술은 어렵지 않다. 자궁 문도 쉽게 열린다. 하지만 살아 있는 아기를 없애려 하면 그 문이 잘 안 열린다. 모체가 아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 세계 잡아내야 한다. 그래도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날카로운 기구를 넣어 끊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럼 자궁내막에 상처가 나거나 심하면 자궁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 후에도 우울증이나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이런 정신적 문제는 낙태를 스스로 원해서 한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이 낙태 수술의 실체다. 그런데도 낙태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차희제 회장. 그는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면서 산부인과 의사이고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다. 그는 여성들이 낙태 수술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영 기자

헌재 판결 이후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며 “낙태 시술 진료 거부권을 같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온 힘을 다해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가졌다. 그런데 멸정히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려나, 어찌 그럴 수 있겠나. 그러므로 의사라면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하고, 낙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판단에 따라 낙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사회·경제적 판단이다. 쉽게 말해 돈이 된다는 거다. 낙태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가가 높다. 보험이 적용되는 유산 수술보다 10배가량 더 비싸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유혹을 느끼기 쉽다는 뜻이다.

만약 낙태 수술비용이 유산 수술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되면 과연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하려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낙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 돈도 되지 않는데 굳이 찢쩍한 마음을 안고 낙태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부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 알릴 것이고, 낙태하려는 임부들의 대다수는 그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낙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욕할 수도 없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좋아졌지만, 최근까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주로 밤에 이뤄지는 출산, 임마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지켜야 하는 점, 넓고 쾌적한 병실의 구비 등 산부인과 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낙태 수술에 유혹을 느끼는 주된 이유다. 그나마도 낙태가 죄일 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질까 걱정이다.

그렇기에 법을 논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국민적 합의 없이 덜컥 헌법불합치 판결부터 내렸다.

그래도 2020년까지 시간이 주어질 건 다행이다. 그 때까지 낙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시기로 임신 22주 내외를 들었다.

“그 정도면 다 큰 아기나 다름없다.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헌재는 생존 가능성 여부를 들어 임신 22주 내외를 사실상 낙태 수술의 한계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 낙태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다.

엄마 뱃속에 잘 있는 아기가 왜 하필 그 시점에 밖으로 나와야 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헌법재판관

들이 과연 22주 정도의 아이가 어떤 모습이고,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기나 할까? 마치 22주 내외가 의학적, 과학적 기준인양 말하는데, 밖으로 끄집어 내지 않으면 그 아기의 생존 확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00%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지금껏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학적, 과학적 판단도 아니며, 여성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다.”

의회에 제안할 법안이 있나?

“가톨릭 교인으로서 내 종교적 신념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낙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재의 판결이 낳기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그 중 하나가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대개 임신 6주 정도다.

이런 주장을 하면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 '6주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말이나?'라고 지적할 것이다.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방안이라도 제안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원칙만 내세우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비참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숨 죽이지 말고 외치자, 밖으로 뛰쳐나와 함께 행동하자'고 말하고 싶다.” 김진영 기자

중입자 암치료의 선도자 조규면 박사 초청 암 치료 및 예방법 세미나

암은 반드시 정복 되어야 합니다!

암환자에게 희망이 되는 중입자치료란 무엇인가?

“입자치료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여 중증 암환자나 희귀암 환자도 치료합니다.”
입자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혈액암도 면역세포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1기)~4기(일부 전이·재발된 암환자) 그리고 심지어 의료기관에서 치료 대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 희귀 암환자까지 치료합니다.

- 일 시 : 1차 2019년 4월 28일(주일) 오후 12:45~2:00
2차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0:00~12:00 (간단한 다과 및 김밥 제공)
- 장 소 : 마가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참가비 : \$20 (좌석관례로 예약하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비 내시면 판매가 \$30 함초분말(150g)을 선물로 드립니다.
- 주 최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기독교일보, 홈쇼핑월드
- 주 관 : hembpiousa.com
- 문 의 :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605-2772, 최형철 장로 (626)786-1814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펄스암초 제용 개발자

회복을 위한 간구

시편 6: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시편 6:1-6

1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넷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시편 6편은 참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일곱편 정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애절한 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6편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기도하고 위협하기도 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도 죄값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다가 죽으면 그 죄 값으로 음부에 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때 저희가 다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속에 의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탄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죄 값으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마귀가 계획한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예표이던 다윗의 범죄

성경에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 예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훈련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기 위한 목동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였고 큰 기대감으로 다윗을 도와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도록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시편 32:1-6에 보면 "허물한 사람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

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 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흥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창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 자기가 말라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고백하며 애통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록에 적혀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은혜보답에 힘써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보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고발과 진지한 회개의 자세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날카롭게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며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는 용서 받았지만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타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6:2-3)"와 같은 표현한 것은 그의 영혼이 지금 지옥

로 던져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까 진심으로 뼈가 떨리도록 영혼이 벌벌 떨며 회개하는 진지한 회개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용서를 하실 때까지 그 사람의 죄를 심판 보류하는 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이후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혈만이 아담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실 구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 받지 못하고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지옥에 들어갈 흰 보좌 심판을 받을 대기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대로 주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7절의 '내 모든 대적'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 교만함에 밧세바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적전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으며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도 막아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지음

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후 담대해진 다윗

흔히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그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8절은 죄를 한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저주하며 미워하면서 그 죄가 온전히 용서받지도록 단식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영감적인 응답이 "야!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생각될 때에 다시금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니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이여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니(시6:9-10)"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미혹되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나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괴롭혔던 마귀와 그 앞잡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오니 다윗은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듯 보여도 하나님을 보실 때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고 여기시면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무엇보다 죄를 경계하며 죄를 짓지 말 것이며 죄를 짓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복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역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리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금부터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가이아 동충하초

GAIA CODYCEPS

처음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소령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 한국 식약처 인건 검사필 (No. 2013-0372219)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현미

한병 분말 100g \$130+Tax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끓는 물에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넣고, 커피로 공복에 먹습니다. 동충하초 1스푼을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십니다. 밥을 먹고 난뒤에 분말 1스푼을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십니다.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떠올릴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 하면 항암효과를 많이 떠올리시죠? 사실, 항암성 동충하초는 높은 농도 약제물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분 도중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셀코나 비리나스, 감명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항암효과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당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다량 성분인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액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량 성분인 에르고스테롤 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년 불로초는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께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기억력 증진, 인지능력 향상,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구입문의 213.434.1170
 prozusa@gmail.com
 프로-Z USA Inc.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프로지 유즈에이

THC Free
환각기능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헴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천연재료입니다.
* 지중해권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저급해
영양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ABA는 미국암협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헴프시드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
선형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헴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ain)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헴프함초 제품 개발자

\$250+tax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기독일보 “6월 썸머스페셜” 추억여행

“포인트 로마”와 “코로라도 섬” & 기차여행

지명	시간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일보	08:00	기독일보 집결 (3020 Wilshire Blvd, #160)	
유니온 역	08:30	유니온 역 도착 후 승차 수속	대형 고급 버스
	08:40	기차 탑승 [태평양 연안 기차 여행] 출발	
오션사이드	10:52	오션사이드 도착 후 렉시 뷔페 중식	
포인트로마	13:30	포인트로마로 이동 및 도착 후 [추억 여행] 주어진 미션 수행 [사진 촬영]	기차 여행
샌디에고	14:30	샌디에고로 이동 및 도착 [항만 관광]	
	15:00	[페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중식: 렉시 뷔페
코로라도 섬	16:15	호텔 델 콜로라도 [추억 여행] 후 L.A.로 출발	
기독일보	18:30	기독일보 도착 및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렉시 일식 뷔페), 기차(L.A. Union to Oceanside), 포인트로마 입장료, 페리 탑승 요금 등.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호텔 델
콜로라도

페리

포인트로마
등대

기차 여행

The Lux Buffet
일식 뷔페

\$99

팁(\$10)별도
기차 포함

오션사이드
피어

기차 여행

기차 여행

Tel. (213)739-0403, (213)434-1170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chdailya@gmail.com

REPAIR SERVANT

고쳐드립니다

교회 장비가 고장났습니까?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RepairServant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RepairServant는 기술지원으로 복음사역을 돕습니다.

RepairServant.com

마원철 목사

The Leader of RepairServant

한국경희음대 성악 전공
여의도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
Golden Gate Seminary 신학교 졸업
ANC온누리교회 미디어 공동체 담당
인랜드온누리교회 담임
팜스프링스온누리교회 담임
로컬교회 29년 사역 후 2019년 1월 은퇴

Repairservant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6년 전 수술을 하게 된 이유로 건강상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도난으로 인해 예배장비를 잃어버린 교회를 돕다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Repairservant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교회장비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소식이 여러 교회에 알려지게 되자 집회인도까지 요청받으면서 찬양과 말씀으로 주일예배나 헌신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문화와 찬양으로 세상에 나누고자 카페사역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봄 LA Come Mission 건물에서 시작된 히스카페가 이제 9명의 전문 뮤지션들과 13명의 봉사자들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재능 기부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담임목사로 돌아왔지만 이 사역들이 꾸준히 진행됨을 보면서 저는 Repairservant 사역이 남은 저의 인생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지난 1월에 담임목사 조기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LA부근의 교회를 섬겼지만 이전 먼 지역을 찾아가고 싶어서 RV를 마련했습니다. Repairservant RV사역 기간은 주로 여름철이 될 것입니다.

*마원철목사 자료 참고 _Google 서치, Facebook(Repairservant), www.repairserva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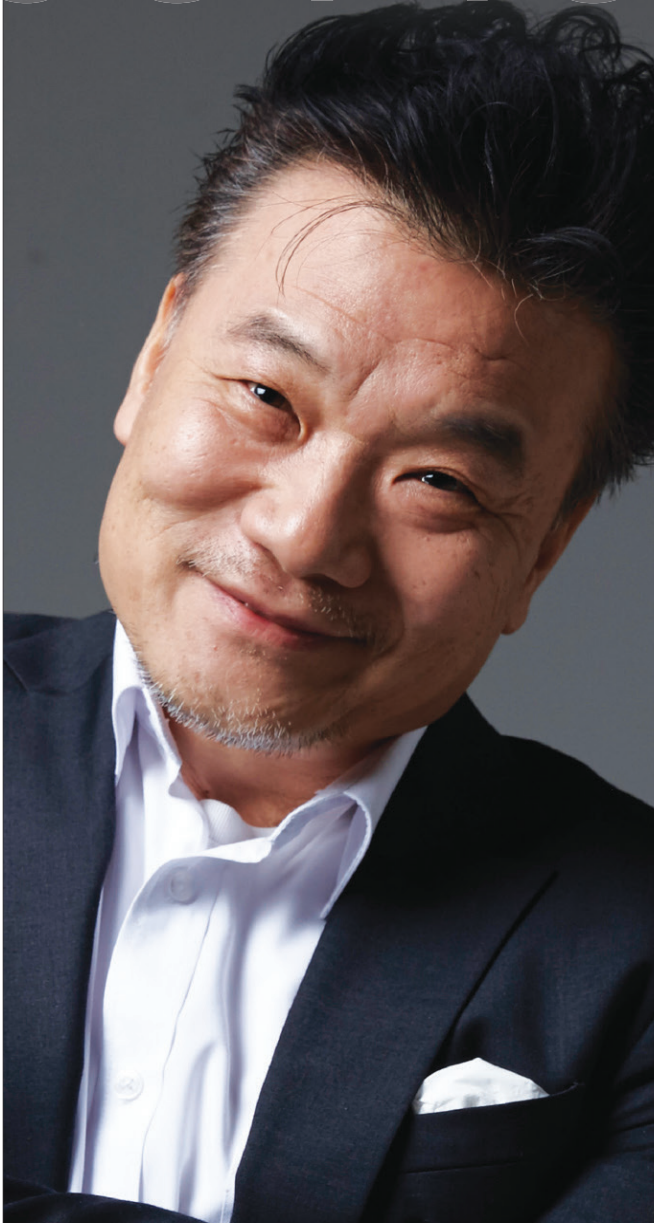
(909) 292-7474

✉ RepairServant@gmail.com

*부재시 텍스트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수리 / 비디오장비 수리 / 컴퓨터 수리 / 전자악기 수리 / 기타 수리 / 피아노 조율 및 수리

JOY4U



최인혁

In Hyuk Choi

- CBS라디오CCM프로그램 다수 진행
- CBS JOY4U 낮 12시 사랑의노래평화의노래 진행
- 대표곡: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의 선물, 성령의바람, 인생한번
- 2011년 25주년 헌정음반 제작
- 2017년 사역33주년 기념 공연(목동아이스링크)
- 한국찬양사역자연합 회장



송정미

Jung Mee Song

- CBS JOY4U 오전 10시 송정미의 축복송진행
- 국내 최고의 여성 CCM 아티스트
- 송실대학교 기독교음악과 교수
- 16개 나라에서 불리는 축복송의작사작곡자
- 매년 크리스마스 인 러브 공연
- 2018년 사역 30주년기념 the voice 공연 서울 예술의전당



특별출연:

안재우

Jae Woo Ahn

-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 2017, 2018 한국 최초로 국제복화술 축제 공식초청 공연
- SBS 스타킹 등 다수 프로그램 출연
- 한국 복화술협회 회장

CBS America TV

Ch 18.7

개국 감사예배 & 축하공연

“ 한국최고 찬양사역자와 함께하는 CCM 콘서트 ”
4월27일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4월 27일 토요일(Sat) 오후 5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 교회 (964 S. Berendo St., Los Angeles)
 문의. (213) 290-2431

주 최 : **CBS**
 America TV CH 18.7

후원(무순) : 국회조찬기도회, LA 총영사관,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주안예교회, 월셔연합감리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오직예수선교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크리천비전, 기독교일보, 장로신문, CA 68지구 하원의원, 최석호,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허브웬스, LA 민주평통, 서울메디칼 그룹,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스포츠서울 USA, 코리아타운 데일리.



간증하는 김신애 사모

밀알의 밤, 김신애 사모 간증 '손과 발은 잃었지만...'

아틀란타밀알선교단(단장 최재휴 목사) 장애인의 날 기념예배가 17일(수) 오후 8시, 한미전교회(담임 이요셉 목사)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한미전교회 수요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밀알선교단 사역 소개 영상, 이재선 목사(에틀랜타교회협의회 회장)의 기도, 솔리데오 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이요셉 목사가 요한복음 9장 35-41절을 본문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임한 복'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신애 사모는 2014년 갑작스런 패혈증으로 임신 중이던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결국 손과 발을 절단해야 했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심을 간증했다. 당시 김신애 사모의 소식은 본지를 비롯해 많은 한인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고, 한인사회 전체의 관심과 모금이 이어졌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금을 사용하셔서 김신애 사모 가정을 다시 세워가고 계신다. 김 사모는 의식을 회복하고 손과 발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깊이 절망했지만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그냥 나 이제 이려고 어떻게 살지? 삶

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각 증세로 앞에 약봉지들이 보였는데 순간 '저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근데 생각해보니 발이 없어서 저 앞까지 갈수가 없고 가더라도 손이 없어서 약봉지를 열수가 없어 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럼 살아야겠다...어떻게 살지...행복하게 살아야겠다...하나님 안에서 우리가족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 '절망하며 주님 원망하길 바라는 사단에게 지지말자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다"고 간증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남겼다. 예배는 이후 밀알선교단 이사 양영선 장로의 헌금기도, 밀알 사랑의 교실의 헌금특송 등으로 마무리 됐다. 최재휴 목사는 특별히 장애인 선교센터 구입을 위한 모금운동을 알리고, 에틀랜타 지역 장애인 사역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하나님의 사람 故 정남식 목사 1주기 추모예배



고(故) 정남식 목사 1주기 추모예배

故 정남식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5일, 유가족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웨드렐웨이 해송 식당에서 있었다.

추모예배는 고인이 남기고간 신앙의 유산과 인내와 충성으로 믿음의 분을 보인 고인을 회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원로목사회 총무 허인회 목사의 인도로 원로목사회 부회장 이창구 목사가 기도, 원로목사회 회장인 문창선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故 정남식 목사의 장로교 신학교 9년 후배인 문창선 목사는 자신이 1983년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 부임했을 때, 지역 목사님들을 모두 초대해 인사를 나누던 일을 떠올리며 "매우 자상하고 삶으로 말씀을 드러낸 목회자였다"고 회고했다. 문 목사는 "정 목사님은 유별나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초지일관 믿음을 보여 주셨던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삶을 사셨다며 "교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언제나 신앙의 본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문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연수는 빨리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듯이 우리는 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

다"며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기에, 고 정남식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군자 사모는 감사인사에서 "남편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남편을 뵈게 될 일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며 "정 목사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사역의 동료가 되어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황선규 목사(GSM 선한목자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고(故) 정 목사는 평양 출생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먼저 모친을 여의고 18세가 되던 해 아버지와 동생들을 북에 남겨두고 걸어서 월남했고, 걸어서 찾아간 곳이 고(故) 한경직 목사가 시무했던 영락교회였다.

그는 이후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거쳐, 영락교회 전도사로 시무했고, 새문안교회 부목사를 거쳐, 도미 후 1973년부터 은퇴까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시무했다.

플 원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예배) 오전 11:30
대학생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il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을 휘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양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8:00
중보기도회 (월)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예배(캘리포니아) (소셜메) 오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정창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더는 오후 6:30

GO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경향 사역, 십자가 사역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차부, 유초등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저녁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리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찬양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살랑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30(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汉语普通话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대) 오후 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빙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쁨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대)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대)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대)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대)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어둠의 권세 이긴 부활의 능력 북녘에도 전해지길”

2019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드려



2019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속 교단을 중심으로 국내 70개 교단이 주최한 '2019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본격 예배에 앞서 준비위원장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의 진행으로 주요 참석자들이 인사와 대화사, 환영사, 축사를 전했다. 대화장 이승희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는 대화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세상에 그 힘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성도가 연합해 이 어두운 시대와 탄식이 넘치는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우리를 넘어서 절망의 땅 북녘까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복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가 인도한 예배는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기도, 여로웨나 집사(한국외국인선교회, 이주민선교회)와 강명도 선교사(동포사랑전국연합회 대표)의 성경봉독, 전명구 감독(기감)의 설교, 유성원 목사(기성 총회장)가 집례한 성찬, 남상훈 장로(한국장로

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봉헌기도, 특별기도, 이주훈 목사(예장 백석대신 총회장)의 부활절선언문 낭독, 립형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 시 100:1~5, 요 11:25-2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전명구 감독은 "수많은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라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긴다"고 했다.

특히 이날 부활절연합예배 참가자들은 이주훈 목사가 낭독한 '부활절 선언문'에서 "세속화와 정부의 낙태 허용,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차별금지법 제정, 무분별한 이슬람 우대정책과 전통문화를 표방한 미신종교의 허용을 반대한다"며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활절연합예배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그의 아내인 최지영 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한때 낙태 고민, 그러나 아이 낳은 게 가장 잘한 일”

생명사랑국민연합 등 '헌법불합치' 판결 규탄



생명사랑국민연합이 현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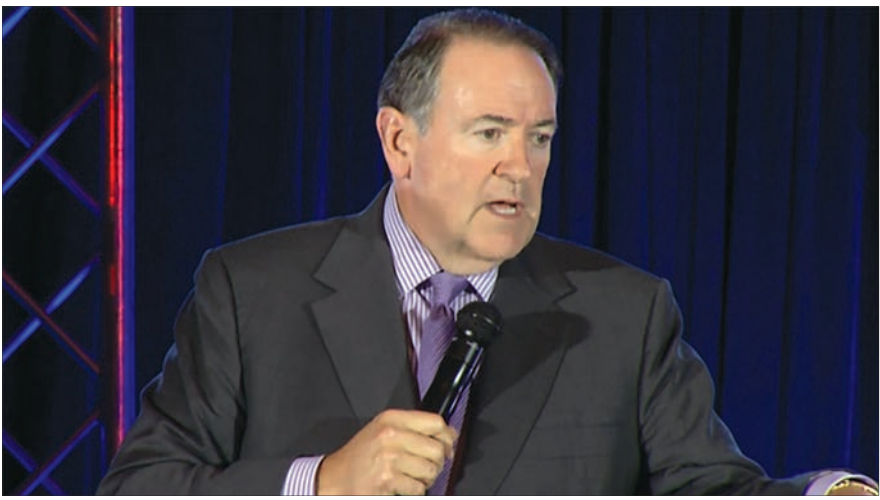
생명사랑국민연합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극단 페미니즘 단체들과 일부 정치인은 임신 주기와 상관없이 무차별 낙태를 허용한 거라며 주장을 펴고 있다. 이기적으로 무차별 낙태를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보호연맹의 안양호 성교육강사는 "만약 12주 이하 낙태가 허용되면 대한민국은 도망간 남자를 낙태로 해결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많은 언론들이 거짓말을 한다. 첫 번째는 선진국이 낙태죄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12주 이내를 부분 허용할 뿐이고 그 외에는 철저히 심각하게 처벌하고 있다. 둘째는 낙태 합법화로 낙태가 줄었다는 거짓말이다. 낙태가 줄어든 이유는 양육 책임법,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교육,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양육비 책임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해야 한다. 남성에게 대한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여권과 운전면허 정지, 사업자 면허 취소, 재산 추심, 차압 등의 강제력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여성과 태아가 보호 받고 출산과 양육을 쉽게 하도록 입법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 강사는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피임만 잘하면 언제든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어른들도 모르는 피임 기술 12가지를 늘어놓으면서 정작 10대 조기성관계가 자궁경부암, 성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 그리고 100% 피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적지 않는다. 함부로 성관계를 갖다 아기를 갖게 된 10대는 낙태하게 되거나 임신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 유기하는 사회 문제를 낳는다"며 "낙태의 후유증, 생명의 존엄성,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한 학부모는 수없이 낙태를 생각했던 과거를 고백하기도 했다. 41세의 나이에 셋째를 임신하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오랜 기간 낙태를 망설였다. 집안이 어려웠기에 독한 마음 먹고 지우려 했다. 그런데 14주 초음파 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아이를 보았다. 또 국가에서 심장이 뛰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알려졌고, 혹여나 낙태를 하고 우울증 등에 시달릴까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신의기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 전미히스패닉 기독교지도자 컨퍼런스 제공

“성 정체성 재정의 문제 美 도덕성에 가장 큰 위협”

미국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전 아칸소 주지사가 '성과 성적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문제'가 미국의 도덕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BS 방송에서 '허커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허커비 전 주지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문화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족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을 포기한 일,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 결혼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혼도 큰 문제가 아니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사이가 아닌 어떤 형태의 결혼도 다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성(gender)이 유동적이라는 관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보다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초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 성경은 오래된 책이고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더 이상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당신의 느낌대로 하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왔다. 더 현대적이고, 관련이 있고, 교감하고, 유행에 민

감해지기 위해 성경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묵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쾌하고, 비판적이고, 증오스럽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진리’, ‘우리의 문화’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문화를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조율하는 것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난 분명히 하고 싶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자연법을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거부한다. 만약 내 삶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조율하는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내 삶의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결과는 혼돈과 소음일 뿐이다. 악기들은 톤과 음량과 소리가 다 같지 않다. 그러나 튜닝 기계로 조율이 될 때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남침례회 목회자 출신이기도 한 그는 이후 TBS에 방송에서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허핑턴포스트, 라이트닝와치, 핑크뉴스 등 거의 모든 좌파 매체들이 나를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찍었다”면서 “그러나 나의 이같은 관점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지금도 매우 확고하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로렌 데이글

“음악으로 육체의 병 치유 받았다”



로렌 데이글. ©Z100 영상화면 캡처

그레미상을 수상한 미국의 CCM 가수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이 최근 뉴욕 Z100 스튜디오를 방문해 음악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작년 9월에 발매된 그녀의 신곡 ‘룩 업 차일드’(Look Up Child)는 드레이크,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 카디 비 등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빌보드 200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후 그녀는 주류 방송사에 출연하며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Z100에서 그녀는 15살 때 시토크갈로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에이즈 환자나 신생아에게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항상 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목소리 레슨을 시작하자’, ‘음악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하셨다. 난 음악에 빠지게 되었고, 질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처럼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 오늘날 그녀가 하는 대부분의 음악에 영감을 가져다주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은 현실은 사실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장소이며, 우리를 압도하고, 모든 것을 소모하는 장소는 사실 운명이 시작되는 곳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강혜진 기자

조니 에릭슨 타다

“폐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복음 전도자이자 작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주 전 심각한 고통과 함께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타다는 폐를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조니와 친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타다가 병원 입구에서 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녀는 “

방금 퇴원 서류에 서명했고...자유다! 폐를 치료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신한 공기는 언제 마셔도 좋다! 14일 간의 입원 후, 이 놀라운 퇴원을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오늘 나의 찬양은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영광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p> <p>이호민 담임목사</p> <p>가디나선교교회</p> <p>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W.S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신태섭 담임목사</p> <p>가디나장로교회</p> <p>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p> <p>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p> <p>이석부 담임목사</p> <p>나성금란교회</p> <p>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p> <p>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p> <p>김준식 담임목사</p> <p>남가주샬롬교회</p> <p>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p> <p>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권영국 담임목사</p> <p>대흥장로교회</p> <p>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p> <p>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p>	<p>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p> <p>서보천 담임목사</p> <p>둘로스교회</p> <p>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p> <p>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p>
<p>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강신권 담임목사</p> <p>세계성경장로교회</p> <p>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p> <p>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p>	<p>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p> <p>김경환 담임목사</p> <p>은혜로교회</p> <p>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p> <p>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딛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p> <p>이호우 담임목사</p> <p>좋은소식교회</p> <p>Good News Church</p> <p>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p> <p>박성규 담임목사</p> <p>주님세운교회</p> <p>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p> <p>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p> <p>이상훈 담임목사</p> <p>주비전교회</p> <p>하나님 마음으로 영방을 열자</p> <p>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p> <p>이종용 담임목사</p> <p>코너스톤교회</p> <p>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p>
<p>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p> <p>고창현 담임목사</p> <p>토렌스제일장로교회</p> <p>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p> <p>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p>	<p>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p> <p>김우준 담임목사</p> <p>토렌스 조은교회</p> <p>주님앞에 드러냄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p> <p>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p>
<p>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p> <p>윤 목 담임목사</p> <p>한인소망교회</p> <p>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p> <p>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O.C, 엘바인 지역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CMF선교회</p> <p>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p>	<p>성경통독미팅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중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p> <p>이명익 담임목사</p> <p>UBM교회</p> <p>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p> <p>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p>
<p>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p> <p>민승기 담임목사</p> <p>갈보리새생명교회</p> <p>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p> <p>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평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p> <p>구봉주 담임목사</p> <p>감사한인교회</p> <p>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성서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교회(과목)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p> <p>민경엽 담임목사</p> <p>나침반교회</p> <p>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p>	<p>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p> <p>오병익 담임목사</p> <p>남가주 벨엘 교회</p> <p>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p> <p>백정우 담임목사</p> <p>남가주동신교회</p> <p>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p> <p>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p> <p>이 일 담임목사</p> <p>남가주순복음교회</p> <p>예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음주의로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p> <p>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p>
<p>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p> <p>김성원 담임목사</p> <p>남가주새소망교회</p> <p>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우 받아 함께 할러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p> <p>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중등부 수요일성령대명회 오후 8:00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p> <p>왕상윤 담임목사</p> <p>NEXT 사랑의교회</p> <p>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p> <p>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p>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중국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상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회 오전 9시(목) 새벽기도회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5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논의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다음세대를 살리는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성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소장 최경화



최경화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소장

다년간 학교의 요청으로 학생들을 만나며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느끼는데 특별히 남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만집에 관한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3년 전 만해도 북도에서 친구들의 몸(생식기)을 손으로 치고 지나가는 행동이 많아서 이런 행동이 잘못임을 알려달라는 의뢰가 많았는데 이젠 남학생들끼리 유사 성행위의 모습을 장난이라며 교실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영향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이 성교육을 진행하는데 선택한 교과서에 따라 책임이 없는 성적자기결정권과 동성혼이 합법화 된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외부강사를 초청해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교안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는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즉 인종이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인 것처럼 성 또한 소수자가 있는데 이것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고 차이라고 주입하는 내용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교육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성적으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모두에게는 인권이 있다는 포장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조차 혐오로 간주한다.

올해 들어 많은 기관에서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성인지 감수성, 성소수자의 이해와 인권,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놀라운 것은 성교육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다. 40~50대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일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자신들도 모르게 흡수되어 크리스찬들조차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다. 한 기관에서는 이미 100개 학교 500여 교육의뢰를 받아놓고 이런 내용의 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관이 제시하는 교육자료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성애자들도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잖아요."라는 말을 왜 했는지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젠더이데올로기' 교육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의 정확한 분별력보다 감정에 치우치게 안내한다.

둘째, 왜곡된 미디어의 영향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초등학생부터 너무나 쉽게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성교육을 진행하며 있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동성애(레즈비언) 웹툰을 보면서 옆 친구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학생은 자신이 매일 보는 웹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여기고 어느새 자신도 같은 동성 친구들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불쾌감 없이 스킨십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웹툰 뿐만이 아니라 게임 역시 유튜브에 광고를 하면서 과하게 선정적이고 성을 폭력적으로 묘사해서 초등학생들조차 입에 담기 부끄러운 단어 표현을 하고 그런 게임과 웹툰을 재미로만 여기고 있었다. 한 기관에서 성교육과 상담담을 의뢰 받고 진행하던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항문삽입을 시도했었고 중학생이 되자 아는 형과 서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다가

각된 상태였다. 또, 중학교 2학년 여학생 7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때 7명 모두 음란물을 보고 있었는데 동성 간의 성행위와 순간까지 보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채팅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이제 성인인증이 필요 없이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도 선택하며 접속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되고 부모님마저도 사춘기 때는 호기심이 생겨서 잠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세대는 지금처럼 성교육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문란하고 왜곡된 성문화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호소한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읽을 만한 성교육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지만 필자는 현재 출간된 성교육 책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읽기에 적절한 책은 없다고 말씀 드린다.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인 글과 그림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나온 성교육 동화책들도 외국서적을 번역해서 출판되어 적나라한 그림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오히려 적나라한 그림과 설명이 더 좋다고도 하신다.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을 벗어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자녀를 보내기도 하지만 외부 기관들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르며 피인교육과 다양성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은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도 경기도의 한 청소년활동센터에서 성교육을 의뢰했는데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젠더교육을 중점으로 다루어 주고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외모를 보고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교육을 의뢰한 담당자는 트랜스젠더, 범성애, 무성애 등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이런 성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성의 본질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전전두엽이 아직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의 성교육은 잘못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유발시킨다고 하였지만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교육해줄 다른 성교육자를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교 밖 기관에서 교육 받은 청소년들은 또래 활동가로서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친구들에게 성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특별하게 음란물에 노출된 학생들만 만나고 다니시는 것은 아닐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동성애를 싫어해요." 그러나, 음란물에 노출된 학생들 중에 일부를 만나고 있으며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학생들 중에 일부를 만날 뿐이다.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다를 것이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교회에서 '성'을 교육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학교와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정죄하고 말 것이다.

학교와 대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젠더이데올로기'교육으로 부터 이제 말씀은 근거로 한 성경적 성교육이 시급하다.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룬 나이부터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성경체계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너는 동성애자야!'라고 하며 성소수자모임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본질과 성적 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내용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적 일탈에 노출된 다음세대들에게 생명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고 바른 성윤리를 정립시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젠더교육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baeksong.kr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오전 11:00 | 오후 7:30

주제: 오전 - 신유로 열리는 천국 | 오후 -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

2019. 4. 24 (수) 오후 - 5. 4 (토)

주일제외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Berendo 사이 Holms Building Center 지하 1층,
Berendo길 혹은 New Hampshire길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LA 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변화

기적

치유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찬양, 설교 등의 훈련
방언,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알코올/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육의 질병 치유

문의) 213 674 7966 / 213 245 6616
213 249 4790

* 평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월, 수, 금 7:30PM)

YouTube
유튜브에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김성식 목사

미국 LA 백송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서울신학대학원 M.div.
Fuller 대학원 TH.M.D.Miss



원미현 목사

백송교회 교육목사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서울신학대학원 M.div.

백송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해외지부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674 7966,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안사로 231번길 20

보령 백송 수양관 | 041) 931 0195~6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미주성결교회

백송교회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31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8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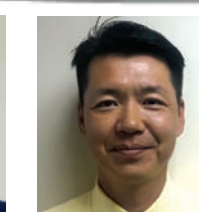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 생명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은 온 인류의 두려움의 대상인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신의 부재”(the absence of God)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한 위로입니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왔다는 것은 일종의 우주적인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하여 인간 세상에 들어온 악을 제거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 부부를 통하여 세상에 죄가 침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두 충족함을 입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고전 1:18)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 지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전 1:25)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악인들의 모함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외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不在, absence)! 그러나 외견상의 절망스런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 용서의 십자가였고,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육체가 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시은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비우신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하난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로서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역사적인 부활일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시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비밀스러운 역전이 될 줄은 사람들도 사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재와 부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 우리에게 한없는 희망을 지금도 선물합니다.

첫 기억의 선물

제 기억 속의 첫 가족 여행은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였습니다. 마침 삼키고 있던 선교 이사회의 모임이 올랜도에 있는 위클리프 본부에서 열리게 되어 가족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큰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었고 막내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이니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슈퍼볼에서 이기면 어디를 가겠냐는 광고에 ‘우리는 디즈니월드를 갑니다.’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집을 떠날 때가 지는 비밀로 했다가 피츠버그에서 올랜도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순간에 “우리는 디즈니월드를 갑니다.”라고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졸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탄 뒤에도 승무원들에게 ‘진짜로 이 비행기가 디즈니월드에 갑니까?’라며 누누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랜도의 따뜻한 날씨와 야수가 즐비한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흥분된 우리는 그냥 걸을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며 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을 흉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내 내기도 하고 당시 유행했던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휘트니 휴스턴의 ‘step by step’을 부르고 괴성을 지르며 우리는 모두 잠시 미쳤습니다. 가족이 함께 처음으로 나들이하는 기쁨과 아이들의 로망인 디즈니월드가 그렇게도 좋았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첫 기억은 소중한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손을 건 네발던 순간의 떨림이 그랬을 것이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의 분신이라는 신비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던 안쓰러움이 그랬고,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

며 사진을 찍던 날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제는 다 큰 아이들 넷이 엄마 아빠를 떼어놓고 처음으로 여행을 가면서 즐거워 하는 사진들을 보내올 때, 대견함으로 몽클했던 마음이 그랬습니다.

혼자 이 세상을 정처 없이 사는 것이 우연의 결과인 줄 알았다가 나를 지으신 이가 있으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기까지 하신다는 허무맹랑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무던 가슴에 방망이질할 때, 세례를 받으며 머리에서 얼굴로 그리고 무릎으로 떨어지던 물이 마치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토닥거림처럼 느껴 졌던 감동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중한 첫 만남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친숙함이 있고, 낯설지만 손에 익은 찻잔을 감싸듯이 따뜻한 예수님과의 첫 기억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도 지루하지 않고 늘어진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영상을 돌려봐도 낯익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폴뉴먼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을 했다고 합니다. 뉴먼이 현역 시절 자신이 직접 집에서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레싱 맛에 반한 친구들이 드레싱을 판매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 지하실에 공장을 차리고 상품을 만들다가 규모가 점점 커져서 다양한 식품들을 판매하게 되었고, 급기야 1982년에 “뉴먼스 오운”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자, 소비자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폴뉴먼이라는 이름이 상품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뉴먼이 이 수많은 수익금의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

사가 1982년에 창업된 후 2016년까지 기부한 금액은 무려 4억 85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시제로 회사의 모든 제품의 표지에는 “수익은 모두 자선단체로”라고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와 빈민구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폴뉴먼은 사비를 털어 “Hole in the Wall Camps”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에서 폴뉴먼은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했습니다. 2016년까지 이 단체에서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이 무려 20만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폴뉴먼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잠시나마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의 의(義)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가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의는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달라도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동부와 고등부 사역자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부와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십니다.



-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 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iclarkmsn@gmail.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 - 교육부 담당목사
- 5.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 (909)591-6500 | info@sunhanchurch.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은 없는, 이제 프로지 PRO-Z를 활짝 웃으세요.

비만의 개선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 예방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수축됩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혈당 관리 역시 100%에 가까워 당뇨병 진단을 받고 1년 이내에는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지 PRO-Z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여주고,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며,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프로지 PRO-Z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여주고,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며,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프로지 PRO-Z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여주고,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며,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세계의 소양 존재하지만 생체내 아연의 양은 극소량에 불과하며, 체내의 아연은 100%가량이 장에서 흡수되어 사용됩니다. 흡수된 아연은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담당하며, 특히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DNA 합성을 촉진하며, 세포 분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또한,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며,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Cn)의 흡수율과 지속력

순수한 아연은 체내에서 흡수율이 낮고, 흡수된 아연은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됩니다. 프로지 PRO-Z는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프로지 PRO-Z는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프로지 PRO-Z는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 연구팀은 프로지 PRO-Z가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체내에서 아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프로지 PRO-Z는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프로지 PRO-Z는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 시작됩니다

당화혈색소 1%만 줄어도 43% 사망률 감소, 37% 심장병 위험 감소, 21% 당뇨 합병증 위험 감소, 14% 시력 개선, 12% 눈 건강 개선.

1병 \$69 Tax, 3병 \$180 Tax, 6병 \$350 Tax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애니 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평소 공공 정책에 관심 많아... LA 12지구 이웃들 응원에 출마 결심

“당선되면 12지구 응급 상황 계획 다시 세울 것”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 해주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LA시의회 12지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애니 조 후보는 6월 4일에 있을 선거를 5주 정도 남기고 유세 활동에 한창이다. 조 후보는 한국에서 11세때 미국 LA로 이민을 와서 캡스테이트 LA를 졸업하고 앨런 크랜스톤 전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크 루스 전 가수 하원의장 보좌관을 거쳤다. 또 제임스 한 정 LA시장 재임 시 LA수도권력국 커미셔너를 역임한바 있다. 이후 부동산 컨설턴트에서 일해왔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성경구절 중에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힘든 이민 생활에 지친 이민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통적인 아줌마 스타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 아줌마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일어선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선거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된다. 3분의1 밖에 안되는 기간에 유권자들을 만나러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있다. 총 12지구에서 6지구를 마쳤다. 자랑스럽고 흐뭇하다. 이웃집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게 또 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이사 와서 30년을 살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방문해 준 분이 없다고 했다.

12지구가 전에는 LA에서 최고의 외곽이었다. 임기제한도 없었을 때 시의원이 30~40년을 일했다. 임기 제한이 생긴 후에는 보좌관이 물려받아서, 이웃집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후보자가 찾아 온 적이 없다’ 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교회 직책은 없으나 18살 때 세례를 받았다. 18살이 되면서 내 자신에게 준 선물이다.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준다는 것을 확신한다. 최근에는 스튜디오 시티에 새들백 교회 캠퍼스가 생겨서 나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다.

선거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작년 여름 초에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 동안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수시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데, 그 동안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에스크로가 잘 끝나게 해주세요.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이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부동산 하는 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껴안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게 더 정확한 기도라고 믿는다. 저는 하나님에 정해 주신 길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전 시의원이 사임을 한다고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길로 가야 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애들도 키우고 있으면서 시 어머니가 17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계셨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못한다.

그 기간 동안 인생살이를 한 것



LA시의회 12지구 출마하는 애니 조 후보. 그는 성구 중에 시편 46편 10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같다. 중년층의 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석이 났는데 출마하면 어떻게 하고 동네 백인 여자들과 이웃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당장 출마 하라고 하더라. ‘당신은 아웃사이더 이니 12지구 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제가 이전부터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관심이 많았으니 출마를 해보라고 해서 지난 1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했다.

선거 활동에 있어서 차별화된 부분이 나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후보자가 24명이었다. 후보자들이 거쳐 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오는 것이다. 저는 500명의 서명을 받고 정식 후보로 접수를 했다.

지금 3가지 전략이 있다. 12지구에서도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며 이 문제를 모든 후보가 내걸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통 문제이다.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트래픽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시의 교통국과 논의해서 실천해 나가려 한다. 12지구는 산책로(walking trails)에

잘 조성되어 있고 환경이 잘되어 있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응급 상황 준비 계획(emergency preparation plan)이 영어와 스페니시로만 되어 있다. 12지구 주민들은 80여개의 언어를 사용 한다. 그래서 응급상황준비계획을 더 많은 언어로 준비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노스캘리포니아의 파라다이스 화재 사망자 중 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형 산불이 당신 마을로 가고 있다’는 연락을 못받은 것이다. 남가주 지역에도 산불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12지구 응급상황계획을 여러 언어로 준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후보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알리소 캐넌 가스 누출 사고도 이슈가 됐다. 천연가스 시설(natural gas facility)이 최대한 빨리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데, 문제는 하루 아침에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당장 폐쇄하면 주민들이 천연가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0년 안에는 폐쇄를 해야 하는데 남가주개스컴퍼니(socalgas)가 지연시키고 있다. 저는 이것을 아니까, 폐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매년 어떤 방식으로 준비

를 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받고 신고를 하게 하려 한다.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당선되면 그 지역에 3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민자로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12지역 모든 주민들이 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섬기는데 노력할 것이다. 눈이오나 비가 오나 계속 집집 마다 다니고 있는데 이번 6월 4일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be still know that I God)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웅다웅 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린다. 그런데 이 구절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차분해지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길이 보이더라.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수계라서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 구절을 하루에 한번 생각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토마스 멩 기자

美 교회, 부활절에 헬리콥터로 3만개 계란 뿌려 ‘화제’



©매트로 커뮤니티 교회

미국 일리노이의 한 대형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헬리콥터로 약 3만 개의 계란을 뿌리는 이벤트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메트로 커뮤니티 교회는 에드워즈빌과 반달리아에 소재한 지교회 교인들과 함께 2년째 ‘이스터 에그 드랍(Easter

Egg Drop)’ 행사를 개최했다. 메트로 커뮤니티의 존 헬캠프 운영책임자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3만 개의 계란을 증정하겠다는 교인이 있었고, 행사를 기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작년에 진행한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올해는 몇 가지를 좀 더 조정했다. 연령대를 다양화하고, 푸

드트럭과 협력하여 계란 수를 1만 개에서 3만 개로 늘렸다. 또 인근 학교에 셔틀 주차장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주변 공동체에 더욱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에드워즈빌의 지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헬캠프는 “이는 우리 공동체에 교회를 알리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공

동체와 관계성을 만들어왔다. 또 주민들이 교인들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배에 나아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삶이 변하고 기쁨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동체와 관계성을 만들어왔다. 또 주민들이 교인들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배에 나아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삶이 변하고 기쁨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원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세서날-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오늘날의 순교,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 아닐까”

김명혁-이응삼 목사,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염원하며’

복음 전하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영육간 존경받던 삶
주기철 목사님 등 순교자들, 죽기를 간절히 바랐던 분
‘종교적 열심’ 동의 못해, ‘십자가 신앙’ 으로 살아가야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순교의 영성을 염원하며’라는 주제로 김명혁 목사(한복합 명예 회장, 강변교회 원로)와 이응삼 목사(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 전 사무총장)가 18일 오전 서울 강변교회(담임 이수환 목사)에서 대담 후, 김철영 목사(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

때 집단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인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보통 1-3천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순교를 보면, 타민족보다 주로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지요. 우리나라에서 6.25 때 대규모 순교를 당했는데, 이 역시 동족들이 이념 때문에 저지른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하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지요. 이응삼 목사: 오늘날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손양원 목사님 때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순교 신앙’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순교란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 아닐까요.

복음을 버리고 죽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순교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빛을 잃고 맛을 잃었습니다. 주기철·손양원 목사님이 살던 시대에 비해 교회가 지도력과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삶이 순교 신앙입니다.

손양원·주기철·이기풍 목사님처럼 순교신앙을 실천하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 종교적 열심보다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천국 사모’가 강렬했기에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종교적 열심과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대형교회 등 외형에 치우치고 있는데요.

김명혁 목사: 저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말 자체에 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과 죽음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꼭 목이 잘려 죽지 않아도, 십자가와 십자가 신앙으로 말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보다 ‘십자가 신앙’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거저처럼 살았습니다.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적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집도 팔아 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로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약해지고 슬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고행주의는 안 되겠지만,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애처로 고난을 스승으로 죽음을 자매’라고 한 것을 고행주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약해지고 착해져야 합니다. 가난과 고난, 슬픔과 아픔과 매맛음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11-12장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지에 서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



어린 주광조를 안고 있는 주기철 목사의 모습. ©홍성사 제공

금은 일부러라도 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사회 상황에서, 가난과 고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명혁 목사: 지금은 편안하지요. 약 80년간 고난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선교적 죽음’을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문에 순교자들의 삶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간증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글을 읽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좋은 집을 마다하고 남한산성 아래 조그만 집에서 은퇴 후 평생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그리워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요한 때이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옆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럴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이응삼 목사: 지금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국내 순교자를 순례하는 일들을 하는데,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지인 증도를 자주 갑니다. 얼마 전 순례에 함께했는데, 10회 이상 갔지만 갈 때마다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의 현장들을 보면서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한 분 덕분에 지역이 복음화되고 예수 믿는 마늘이 됐습니다. 신앙과 삶을 ‘매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교 신앙 이전에, 한국교회에 들어온 천민자본주의를 개혁하고 갱신해야 가난과 고난과 순교의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을까요.

김명혁 목사: 자본주의를 없애는 운동보다는, 지금 쪽 이야기한 대로 순교자들뿐 아니라 장기려·한경직·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귀중한 삶을 함께 돌아보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선배님들의 삶과 순교를 본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이 갑자기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설교가 한 장이었습니까. 구제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길 원하셨습니다.

이응삼 목사: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느낀 것은, 한국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삼각산에 자주 갔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순교도 없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혁 목사: 이성봉·김치선 목사님도 기도에 전력하신 분입니다. 김치선 목사님이 산기도 하면 매일 따라갔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서 순교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용 기자

한국교회 대표적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 신앙과 순교의 영성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나서 보니, 순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응삼 목사: 요즘은 순교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

교회사 속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 신앙을 가진 분이 많으시죠.

김명혁 목사: 말씀하신 스테반 집사님도 있고, 150년 서머나 교회에서 불에 타 순교하신 교부 폴리갑도 있습니다. 순교를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순교를 사모



(왼쪽부터) 김철영 목사, 김명혁 목사, 이응삼 목사.

습니다. 수련회에서 사고를 당해도 ‘순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교를 정의하자면, 사도행전 7장 속 스테반 집사님이 기본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둘째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셋째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삶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누구나 존경받는 것까지 겸비해야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러하셨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기리고 오랫동안 신앙의 모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와 순직을 구분해야겠네요. 순교는 핍박과 박해를 수동적으로 견뎌내고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는 순직의 개념이네요. 한국교회에서 순교자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순교자들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응삼 목사: 일제강점기나 6.25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바라셨습니다. 할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고, 죽기를 바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도 손 목사님 시신 앞에서 먼저 울며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하신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소원을 이뤄주셔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기뻐하면서 순교하셨고, 폴리갑도 ‘날 순교자 삼으십니까’ 하고 영광스러워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생겼고, 그 덕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이기풍 목사님이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죽기를 소원하며 달려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본인이 자원한다고 순교를 당할 수는 없기에 수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박해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 집 과 정

◆학사 과정 (B.Th/B.A)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수시
입학
가능**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고화질, 부동화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하시는 분
- 드럼 연주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결혼 야외 촬영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1-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미주투어

20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후원작



유관순 열사

“주님, 용서하되 잊지 않게 하소서”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의 중심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기독교교육을 받은 소녀들이 있었다. 이화학당, 배화학당 그리고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까지. 기독교정신으로 시대에 저항한 유관순과 8호 감방의 여성 독립투사들 100년 전 그날, 그녀들의 함성이 한국교회에 전달된다!



추천사

- **이영훈 목사** _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임리 교회에서 일본에 의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지켰다. 3.1운동 정신이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청년이 함께 하는 민족 화합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 **김운성 목사** _ 영락교회
충격적이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었던, 백 년 전 그분들의 기도, 지금 청년들에게 알려야 한다!
- **송기성 목사** _ 정동 제일감리교회
교회가 청년 목양의 중심 이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건 목회를 해야 한다!
- **김학중 목사** _ 꿈의교회
백 년 전 시대의 양심은 교회였고,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순교로 만들어낸 사명이다.
- **김은호 목사** _ 오류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이다! 기대하고 기도 한다!
- **강정식 목사** _ 새성남교회
유관순 열사와 8번방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 땅이 꺼져라, 목이 터져라 외치었던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자!
- **이제훈 목사** _ 온누리교회
목사청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이다.
- **고명진 목사** _ 수원 중앙침례교회
문화가 시대의 도구이다. 기독교인이려면 꼭 봐야 한다!
- **천기원 목사** _ 두리하나 선교회
함께 보던 탈북 청소년들의 울음이 영화 보는 내내 그치지 않았다.
- **임현수 목사** _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영화를 통해 800만 디아스포라와 통일 조국을 꿈꾼다.
- **김성로 목사** _ 춘천 한마음교회
유관순 열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

관람일시
영어권을 위한 자막상영

- 5월 17일(금) 오후 7:00 - 라스베가스청년연합집회
- 5월 19일(일) 오후 2:00 - LA웨스트힐장로교회 전교인영화상영
- 5월 22일(수) 오후 7:30 - 나성순복음교회
- 5월 23일(목) 오후 7:00 - SF산호세선교집회(오전 9:00~오후 5:00)
- 5월 24일(금) 오후 7:00 - 남가주은혜한인교회
- 5월 25일(토) 오전 6:00 - 엘에이사라의교회
- 오후 7:00 - 미주비전교회

주최: **기드론 동족선교** 후원: 기독일보 문의: T.(425)775-7477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p>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p>	<p>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p>	<p>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p>
<p>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p>	<p>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p>	<p>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p>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